

신년사

‘MBC만의 정신’으로 새로운 출발을



친애하는 문화방송 사우회원 여러분, 힘차게 용솟음치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쳐 나기를 기원하며 기대와 희망이 담긴 덕담을 나누는 대한민국, MBC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동-정동-여의도-상암동으로 이어지는 지난 60년은 우리 모두에게 긍지와 보람의 시간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은 “시대를 이끄는 영광의 선두주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는 일은 실상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대한 열정과 ‘MBC만의 정신’을 추스른다면 우리는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일치와 감동이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MBC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우회원 여러분!

금년은 사우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우회를 이만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 선배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 다투어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임원진과 사무처는 연초에 여러분께 공약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본사 재정의 어려움에 더해, 사우회의 주 수입원인 보험 알선 수수료도 작년 대비 30%가량 줄어들 전망에 따라 올해 예산도 긴축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의 지출로 살림을 꾸려보겠습니다. 형편이 나쁘지 않았던 지난날과 비교해서 다소 섭섭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사우회원 여러분들 큰 복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아침에
(사)문화방송 사우회 회장
차인태

‘새로움’과 ‘진정성’으로 ‘최고의 MBC’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우회 선배님 여러분!
지난 해는 국민들 가슴 속에 MBC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높아졌다고 느낀 해였습니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들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MBC가 차지하는 무게감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주고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MBC’로 도약하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화두는 역시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늘 추구해온 것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진 ‘D크리에이티브센터’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확고한 MBC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VR사업’은 그 한 예입니다.

한 가지 화두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우리의 콘텐츠들이 대한민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정성을 지닐 때 MBC

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아픔은 무엇인가.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데 MBC 콘텐츠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더 자주 던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모든 면에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미디어가 제시해야 하고, 우리 MBC야말로 그런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에 절망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와 대안들을 다양한 콘텐츠에 담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움’, ‘진정성’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배님들의 가정에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최승호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11월 20일 이후)

임무혁(관리) 100만원	안종순(ANN) 30만원	장영준(보도) 20만원	이영하(기술) 10만원	김선희(ANN) 10만원
정진철(보도) 100만원	정영희(ANN) 30만원	이종철(관리) 20만원	최노석(보도) 10만원	정충성(보도) 10만원
이인숙(ANN) 50만원	박순웅(편제) 30만원	유행남(관리) 20만원	차종식(기술) 10만원	조중현(편제) 10만원
서은선(ANN) 50만원	노영인(편제) 30만원	유수열(편제) 20만원	손도정(관리) 10만원	주광순(관리) 10만원
이상열(보도) 50만원	최인열(기술) 20만원	박유명(관리) 20만원	황학구(편제) 10만원	금기우(기술) 10만원
석남수(기술) 40만원	차영목(관리) 20만원	최순근(편제) 20만원	이영생(관리) 10만원	김영호(관리) 10만원
김채영(ANN) 30만원	박찬순(편제) 20만원	정환웅(편제) 20만원	김종현(기술) 10만원	김필환(관리) 5만원
최운형(ANN) 30만원	김창수(기술) 20만원	백재인(편제) 10만원	최화숙(ANN) 10만원	



‘2019 사우회 송년의 밤’ 성황리에 끝나

12월 12일 저녁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웨딩시티 8층에서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396명의 회원들과 일부 보호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고창근(ANN) 회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민의례와 사가 제창에 이어 차인태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낮익은 얼굴들을 보면 옛 추억을 되새기게 돼 반갑다. 발전기금을 보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MBC가 많이 어려워져서 사상 최초로 본사의 지원이 없는 송년모임을 갖게 됐다. 준비한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식 고문은 건배사를 통해 “MBC가 경영이 좋아져서 내년 송년모임에는 다시 지원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강성구 전 MBC사장도 건배사에서 “새해에는 MBC가 과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기 바란다”

고 덕담을 피력했다. 조석영(ANN)회원과 부인 박찬열씨가 축가를 불러 박수를 받았으며, 한숙동(편제)회원이 친구와 함께 트럼펫과 아코디언, 섹스폰을 번갈아 연주하고, 정태식(기술)회원은 하모니카 연주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양하고 푸짐한 뷔페를 넉넉하게 즐긴 회원들은 사무처가 마련한 2.4kg 꿀 한 병과 MBC 다이어리, 회원수첩, 2020캘린더 등 선물을 받았다.



경조사항

팔순 : 이양길(보도) 41.1.7 박창복(업무) 41.1.9 김인규(편제) 41.1.11
 황학구(편제) 41.1.17 정흥숙(ANN) 41.1.23 이유동(전주) 41.1.25
 백병기(전주) 41.2.6 이종성(기술) 41.2.12 이명수(춘천) 41.2.25

고희 : 김흥기(보도) 51.1.3 오수천(관리) 51.1.9 이영삼(편제) 51.1.12
 정인영(편제) 51.1.16 류월상(편제) 51.2.1 우상원(편제) 51.2.3
 장영효(관리) 51.2.5 임진택(감사) 51.2.15

회갑 : 이종채(기술) 1.10 김동명(편제) 1.17 임경수(편제) 1.18
 박영선(보도) 1.22

결혼 : 김태인(편제) 장남결혼 11.17 김영일(보도) 장녀결혼 1.5

부음 : 최창섭(ANN) 모친상 11.27 최정일(관리) 모친상 12.9
 박노성(관리) 모친상 12.21

신규입회 : 조수원(보도) 12.23

연회비

김기연(80세 완납) 장인순(80세 완납) 김관영('19) 강철호('20)
 권수훈('19) 노홍식('19) 양홍열('19) 인형식('19) 이처경('19~'20)
 이범수('19) 최영호('19) 김용빈('17~'19) 유순옥(대구)('17~'19)
 박준하('19~'20) 이명자('18~'20) 윤재민('19~'20 1만원 미납)
 권황택(전주)('18~'19) 손도정('20) 임부영('20) 이명수(춘천)('20)
 윤남현(대전)('20) 최영복('19 2만원 미납) 김종국('20)
 방영희('17-'19) 진경현('19년 1만원 미납) 이대교('20) 남궁옥인('20)
 정대용('18-'20) 조병영('19) 박종진('20-'21) 홍순흥('19) 김점용('19)
 장기재('19-'20) 이승문('20) 김세일('20 2만원 미납) 김종수('20)
 김영균('20) 문성수('20) 권상규('20~'22)

주소 / 전화번호 변경

보도 : 이우호 성동구 상원길 47 (성수동1가, 중앙하이츠빌)
 윤재근 서초구 방배중앙로21길 55 (방배동, 방배3차현대홈타운)
 김진호 강남구 압구정로 40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편제 : 김주배 의왕시 백운중앙로 46(학의동,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관리 : 오정훈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22-21 가좌동
 정 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98(문촌마을17단지아파트)
 박순호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30번길 6-17(진암리, 동양아파트)
 안영순 음성군 생극면 생오로 145-10 오생리

기술 : 노영남 서울 강동구 고덕로 333(고덕그라시아아파트)
 방준식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62가길 6-9(응봉동)

대구 : 유순옥 대구 수성구 들안로67길 8(수성동4가, 한도노블리스)

전주 : 권황택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안길 29



12월 4일 오후 박근숙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87세. 1961년 MBC 개국요원으로 입사했으며 1970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형태의 <뉴스데스크>가 탄생하면서 초대 앵커로 활동했다. 보도국장, 방송상무 등을 역임한 고인은 1990년 6월 사우회가 창립되자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고 1997년까지 재임한 후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창섭(편제)
 11월 23일 별세. 향년 73세, 1975년 입사해 무대미술 담당. 2004년 정년퇴직.



신원호(기술)
 12월 21일 별세. 향년 74세. 1969년 기술국에 입사. 2003년 SBS로 이직.



이상필(관리)
 12월 22일 별세. 향년 87세. 1961년 입사해 비상계획부에서 근무. 1975년 퇴사.

회비와 발전기금계좌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되며,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쓸 예정입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제4차 이사회 열려, 경조비 지급 규정 일부 개정 등

11월 14일 오전, 2019년도 제 4차 이사회가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사 21명 중 17명이 참석(4명은 위임)한 이날 논의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송년모임 건, 회무규정 일부 개정 건, 보유 자금 활용 건, 기타 안건 등이다.

회무규정 일부 개정 건에서는 경조비 지급 규정 중 고희 축하금 20만원을 10만원으로 낮추고, '5년 이상 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2년 이상 회비 미납'으로 개정했다. 이 규정의 집행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사우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새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유자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예결산 검토를 위한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는 1월 28일에 열린다.

회장단, 본사 임원들과 송년 오찬

12월 20일 사우회 회장단은 행주산성 '일미정'에서 본사 임원들과 송년 오찬을 가졌다. 본사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차인태 회장은 '한 해 동안 어려운 살림하느라 애 많이 쓰셨다'고 임원들을 격려한 뒤 'MBC에 대한 사우회 선배들의 극진한 염려와 성원'을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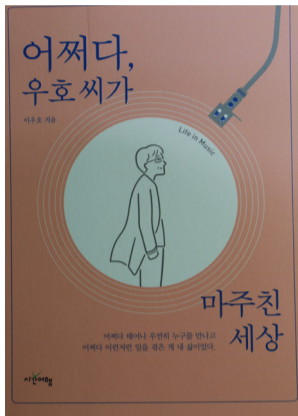
했다. 최승호 사장은 '지상파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장의 리더십이 MBC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본인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



회/원/동/정



이우호(보도) '어쩌다, 우호씨가 마주친 세상'을 출간했다. 어린 시절, 학생 시절, 방송인 시절에 겪었던 사연들과 좋아하는 영화 얘기 등을 걸맞는 노래 가사와 함께 실어, 유려한 문체의 글과 함께 노래가 주는 감동도 덩달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동/호/회/소/식

인사동클럽(회장 이건설)

라디오PD들 모임 인사동클럽은 12월 2일 종로 '능라밥상'에서 15명이 참석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건설 회장은 회원들에게 송년 선물로 전통약과를 전달했다.

청죽회(회장 이중구)

시설부문 회원들 모임 청죽회는 12월 3일 종로 '파노라마' 뷔페에서 29명이 참석해 송년모임을 가졌다. 팔순, 고희, 회갑 회원들의 합동축하연을 겸했다.



문비회(회장 김규홍)

비상계획부에서 근무한 사우들 모임 문비회는 12월 8일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김영만 회원의 식당 '우메골'에서 17명의 회원이 참석해 송년모임을 가졌다.



문우회(회장 최영식)

수송부에서 근무한 회원들 모임 문우회는 12월 14일 교대역 인근 '서초해물'에서 20명이 모여 송년모임을 가졌다.



문미회(회장 표찬일)

미술부문에서 근무한 회원들 모임 문미회는 12월 21일 구로동 '독도 참치'에서 25명이 참석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차기 임원으로 이한수 회장, 김종창 총무가 선출됐다.



쫘므립리어 캄프찌어(Good bye Cambodia)



문장환(기술)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4년간 캄보디아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 자문관'으로 근무했던 문장환입니다. 4년 전 추운 겨울, 미지의 세계에 첫발을 딛는 두려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던 캄보디아의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 귀국보고를 드립니다.

한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파견된 3년간의 공식 자문활동 외에 2023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수하려는 캄보디아를 위해 1년 더 자원 자문관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하고 싶었으나 개인 사정과, 디지털 전환 추진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추가적인 자원

이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날을 회고해보니

첫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정신이 저에게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해에는 어렵다는 크메르어를 배우기 위해 1년간 왕립대학에서 캄보디아어를 수강했고, 크메르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 사람들이 왜 그들만의 글과 말,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지 그들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서 동남아 국가를 새로운 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들과 교류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동남아의 지형적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에 진출해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한 셈입니다. 또한 주변 국가를 여행하며 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 등을 경험하면서, 그 동

안 가졌던 저개발국가라는 인식을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국가'라는 쪽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둘째, 넓은 범위의 사람과 교류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느지막하게 죽마고우 같은 친구를 만나 우의를 다지고, 한국에서 파견된 다른 분야의 자문관과 교류를 가지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의미있는 것은, 저의 파견을 받아주신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님을 비롯한 국장, 현지 직원, 코워커 등과 세미나, 지방출장,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한글 교육을 통해 젊은 공무원들과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속할 수 있었고, 특히 4년간 저를 도와주고 함께 했던 코워커를 수양아들로 삼아 그의 가족들과도 새로운 연분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학교를 찾아 학용품 전달하고, 학교의 화장실과 세면대를 지어주는 작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진정으로 감사해 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을 보면서 남을 위해 함께 하는 작은 일이 저에게 큰 보람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과 학생들에게 부족한 교실을 추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내년 중 건축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4년간 보람있게 지내왔다고 자부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더운 나라의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해준 아내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아내와 함께 한 이국에서의 삶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날이 풀리면 요즘 유행하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와 같은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선후배 여러분, 추위에 몸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장실 기공식

장관님께 이임 인사

마지막으로, 작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에 눈뜨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공공 교육시설은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미술 디자이너 권혁준의 춘천MBC TV 개국 스토리



1982년, 한국프로야구 출범을 주도한 것은 서울을 연고로 창단된 ‘MBC청룡’이었다.

MBC청룡의 첫 번째 엠블럼(사진)을 디자인한 사람은 당시 보도국 소속 디자이너 권혁준(편제)회원이다.

1967년 KBS가 남산에 있던 시절 미술부에 입사한 권 회원은 타

이틀실에 함께 근무했던 백금숙씨와 사내결혼을 했으며, KBS부산 TV국이 개국을 하게 되자 부부가 준비요원으로 발탁돼 4개월간의 부산 생활도 경험한다.

1973년 MBC로 스카우트된 권 회원은 그 과정에서 KBS 경력 6년을 잃어버리면서 호봉도 다섯 개쯤 손해 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1981년 2월, 춘천MBC 사장으로 부임한 이태림(업무) 회원이 손아래 동서인 그를 찾아왔다. TV 개국을 준비하고 있던 이 사장은 권 회원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얼떨결에 TV 방송에 필요한 모든 미술업무를 떠맡게 된 권 회원 부부는 퇴근하자마자 거의 매일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화면조정 카드에서부터 각종 ID카드(사진), 공익 스팟, CM카드, 심지어 세트 디자인까지 작업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1년 반 넘게 보냈다. 일거리가 많을 때면 부인은 춘천 MBC 강 건 국장 댁에서 숙식했다.

1983년 11월 11일 춘천MBC TV가 개국하던 날, 이태림 사장은 권 회원 부부에게 감사패를 건네며 “이 자그마한 정성은 춘천 MBC 전사원이 드리는 것...”이라며 말끝을 잊지 못했고 감사패를 받아든 권 회원 부부도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벽찬 감회를 누를 수 없었다

고 회고한다.

최근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 권혁준 회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하느님의 연필



김종오(보도)

전한 흔적으로 더 으스스한 ‘티라나 광장’ 지나 작은 교회 텃밭에 그녀가 있었다.

한국인의 알바니아 입국은 1990년 당시로서는 불가능했다.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는 평양과 함께 서울과 통화가 되지 않는 단 두 곳 중 한 곳이었고, 한국 취재팀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유럽 자유화 물결이 유럽의 고야라고 불리던 알바니아까지 몰려오면서 문이 빠르게 보였고, 그들에게 귀하다는 컬러TV 한 대를 입국 사정기관에 기증하고서 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암울했던 그 땅에도 이스터 축일(祝日)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드리아해(海)의 3월, 차가운 바람보다 독재자 ‘호자’의 여

입국목적인 ‘알바니아 자유총선 취재’는 제쳐놓고 그녀가 와 있다는 소문을 따라 테레사수녀를 찾아 나섰다.

가난한 인도 여인들이 쓰는 거친 천의 흰 사리를 쓰고, 평생 허리를 구부리고 지낸 탓에 굽은 등을 감싸고 있는 울이 성근 감색 스웨터를 두른 테레사수녀의 두 손이 감싸 안듯 쥐어졌다. 거친 농기구 손잡이를 잡은 느낌이다.

선종 후에 복자와 성인으로 시복, 시성되었지만 ‘허리를 굽혀 섬기는 자는 위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던 『마더 테레사』는 세계 곳곳의 그 많은 이스터 행사를 제쳐놓고 힘든 잠에서 깨어나려는 모국 알바니아의 초라한 부활제에 숨어든 듯 찾아들어, 가난한 모국어로 자유와 희망을 간구하는 동포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었다.

작은 키는 심장수술로 더 줄어들어 있었다.

30년 가까이 지난 취재노트에는 ‘그녀는 “빈자(貧者)를 위해, 특히 가난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알바니아를 기억해 달라”고 했다’라고 적혀 있다. 마주한 『마더 테레사』의 눈빛에서 하늘을 느낀다.

그녀는 늘 “나는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아름다움을 그리시는 하느님의 연필이다. 나는 모두에게서 하느님을 발견한다”고 했었다. 그녀의 빈 공책이 되어 하늘빛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겐 그 순간 강복(降福)이었다.



김승월 칼럼

경청 傾聽



김승월 (편제·이사)

“왜 말 안하고 있어, 말 좀 해” MBC라디오 ‘여성살롱’을 진행했던 원로 아나운서 임국희 씨. 잠자코 있던 내게 그리 말 건넸다. 지난 달 라디오 출신 몇몇 분과 함께 한 점심자리에서다. 그 흔하고 당연한 말이 오랜만에 들은 듯 새롭다. 자기 말하기 바쁜 요즘 세상에 남 더러 말하라고 권하다니.

언제부턴가 친구 대여섯 만나면 한 주제로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다. 둘씩 셋씩 나누어 얘기한다. 한 자리에서 이 얘기, 저 얘기가 동시에 쏟아진다. 말들 참 잘한다. 아는 건 왜 그리 많은지. 미처 생각 못했던 요모조모를 기막히게 짚어낸다. 방송이나 유튜브로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봐서일까. 다들 예전보다 말솜씨 많이 늘었다. 말 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다.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것도 아니다.

영국의 소리전문가 줄리안 트레저 박사는 TED강의에서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60퍼센트 정도의 시간을 듣는데 쓴다’고 했다. ‘듣는 것 중에서 알아듣는 것은 고작 25

퍼센트 정도’, 들어도 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다. 듣기란 소리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마다 나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배우고 익힌 것도 다르며,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다. 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필터로 상대의 소리를 듣게 된다. 줄리안 트레저 박사는 앞서 강의에서 ‘사람은 문화, 언어, 가치관, 믿음, 태도, 기대감, 의도와 같은 필터를 통해 상대의 말을 걸러 듣는다’고 했다. 그만큼 상대에게 말을 제대로 전하기 힘들고, 상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다.

둘러보면, 말 잘하는 사람은 쉽게 떠오른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언뜻 생각나지 않는다. 본인이 말 좀 한다고 생각 들면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이 말 잘하는 사람인지,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할 때가 있다. 마음에도 없는 말, 꾸민 말로 현혹시키기도 한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이다. 공자는 “교언영색에는 인심이 드물다”고 번지르르한 말솜씨를 경계했다.

장자莊子에 흥미 있는 우화가 있다. 노魯나라 수도에 바닷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임금은 이를 길조라 여겨, 바닷새를 종묘 안으로 데려와 거창한 환영회를 열었다. 음악

을 연주해 주고, 술을 권하며 소,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하지만 바닷새는 슬퍼할 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임금은 자신이 즐기는 술, 음악, 음식을 바닷새 역시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다. 아무리 극진한 대접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상대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마음을 얻지 못한다. 장자는 이렇듯 심以聽得心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상대방 마음을 얻는다”며 듣기를 강조했다.

넬슨 만델라는 대화의 첫 규칙으로 정성껏 듣는다는 ‘경청’을 꼽았다.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뿐이다.” 방송 진행자로 이를 날렸던 래리 킹 역시 비슷한 말 했다. “아침마다 되새기는 말이 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뭔가 배우려면 들어야만 한다.”

경청은 소통의 기본이다. 요셉 수도원의 이수철 신부는 강론에서 ‘소통에는 경청이 먼저’라고 했다. 손희승 주교는 ‘말하기 가르치려면, 듣기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사석에서 들려 준 적이 있다. 경청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상대방 말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상대방 마

음을 얻게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한다. 좋은 줄 알면서도 하기 힘든 게 경청이다. 경청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은 참고, 말을 자르거나 돌려서는 안된다. 집중해 들어주면서 말에 반응하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가슴을 열고 사랑하듯 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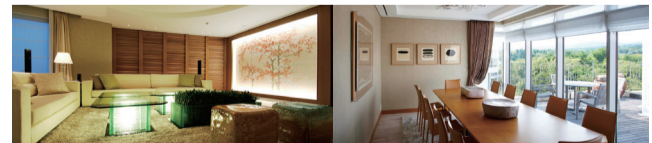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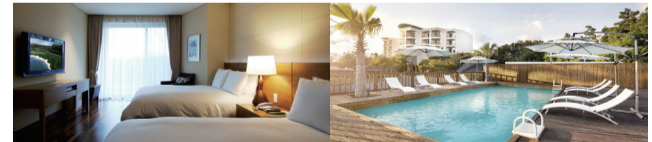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상담 전문가 제임스 설리반 신부는 이 귀한 말씀에서 ‘사랑’을 ‘경청’으로 바꾸면 경청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경청은 참고 기다립니다. 경청은 친절합니다. 경청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새해다. 새해 인사로 덕담 한 마디씩 할 게다. 올해는 한 말씀 하려 들지 말고 한 말이라도 더 들어주면 어떨까. 좋은 말 해주기보다 좋은 말 나오도록 들어 주기다. 내 말은 참고 상대 말 기다려 보기다. 마음까지 찬찬히 헤아리면서. “그래, 올해는 무슨 좋은 계획 있니, 말 좀 해 줄래?”

Advertisement for Teddy Valley Golf & Resort. Includes logos for 'TOP 100 in ASIA', '2019 TOP 10 RESTAURANTS IN KOREA', and '2019 TOP 10 COURSES IN KOREA GOLF MAGAZINE'. Text: '테디밸리 골프 & 리조트',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선정', '2019 대한민국 10대 골프장'.

TEDDY VALLEY 테디밸리 골프 & 리조트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기상변화가 심한 제주에서도 4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최고의 지리적 위치를 자랑합니다. 평균고도 190m의 낮은 위치는 안개, 바람, 비의 영향이 적어 4계절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평화로비에 위치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제주공항에서 30분, 중문까지 7분 거리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라산과 산방산이 어께를 나란히 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골퍼들에게겐 축복받은 땅입니다.



699-92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덕면 한창로 365 |문의 (064) 793-1000

인터뷰

재능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30여년간 보도국 카메라 기자로 일하다가 퇴직 후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양성호(보도) 회원을 만났다. 예나 이제나 밝고 쾌활한 모습이다.



양 성 호(보도)

영상제작 외에 실내건축 또는 인테리어에 관한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는데, 영상제작이야 전문이라고 쳐도 실내 건축은 언제 공부하셨죠?

저는 1981년 카메라 기자로 입사해서 3년간 파리특파원도 경험했고, 신사옥 기획팀에서도 일했고, 디지털뉴스팀장도 하다가 2014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참엔 취미삼아 요리와 목공 기술을 배웠는데, 우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취업하고자 하는 퇴직자나 실업자,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2백만원)이 담긴 카드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실내 건축, 인테리어 등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취업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는 분들이 부탁하면 도움을 드리고 하다 보니 어느 틈에 재능기부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훈련은 어떤 식으로 받았나요?
하루 8시간씩 160시간 동안 설계도면 그리는 것부터 인테리어, 목공 등에 관한 기초적인 공부를 배웠습니다. 한 달쯤 배우고 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실내건축기능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지식만으로는 쓸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CAD라는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과정을 독학했고요, 유튜브나 인터넷 프로그램 강의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보충했습니다. 특히 제가 1초에 30프레임을 다루는 영상기자 출신이다

보니 시, 공간에 대한 감각, 색채나 조명에 대한 감각 등이 일반인들 보다는 예민하고, 또 디지털 영상제작에 대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설계도면을 3D영상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되더군요.

주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됐나요?

사실 제가 목공에 관심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목공 기술 교류를 하는 밴드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자가 만여 명이 넘는 곳인데,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도움이 되는 대답들이 금방 옵니다. 예를 들어, ‘양평에 목조주택을 건설하려는데 기초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올리면 ‘양평은 겨울에 잘 얼기 때문에 땅을 더 깊이 파고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식이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 ‘설계도가 필요한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3D설계도를 만들어 보내주는 겁니다. 입체적인 설계도라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일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 계통에서는 꽤 유명해졌어요.

보수나 사례는 안 받나요?

처음부터 돈 벌려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는 안 받고요, ‘당신이 이 설계도를 통해 돈을 좀 벌면, 나중에 내가 다른 목공 재능기부 할 때 쓸 연장이나 두어 개 사 달라’고 말합니다. 목공 재능기부할 때는 여러 가지 연장들이 필요한데, 요즘 새로 나온 연장들은 좀 비싸거든요.

재능기부는 주로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규모가 작은 예컨대 보육원 같은 곳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 줍니다. 클래식음악실, 영어로 어쿠스틱 룸이라고 하는데, 방음도 되고 악기의 주파수에 따른 적절한 반향효과도 되는 공연장, 큰 홀은 아니고 약

50평 정도의 연주홀을 설계하고 시공해준다든지, 시설 수용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명화들을 전시하는 전시장을 꾸민다든지,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갖춘 판매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등 공사를 할 형편이 어려운 곳을 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상제작 재능기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크게 봐서 1년에 한 7,8건 되는데요. NGO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행사를 하거나 또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홍보를 위해 영상이 필요한데 그걸 제작할 능력이 없을 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음악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연상황을 생생하게 녹화해서 제공하기도 하구요. 아무래도 저는 영상분야에서만 30년 넘게 일한 전문가니까 아마추어들이 만든 영상물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스크립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음악 깔고, 자막 넣고, 성우 섭외해서 녹음 넣고 등등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기는 해도 만들어진 결과가 다르니까 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재능기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요. 재능기부를 제대로 하려면 재료값이라든지 그런 비용도 적잖게 들어갑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교통비 정도는 챙겨 드려야 하거든요. 그 정도 돈은 벌어야 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일도 있으면 당연히 하죠. 그러나 어디 취직을 한다거나, 직업적으로 사무실을 연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아직은 젊고 또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는 그런 생활을 하자는 생각이거든요.

자녀는 어떻게...결혼들은 했나요?

2남 1녀인데 아직 아무도 결혼은 안 했습니다. 직장들은 다 갖고 있고요. 요즘 애들이 어디 부모 뜻대로 사나요? 각자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들에게 뭘 남겨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부담 주기도 싫고요. 아들 중 한 녀석이 제가 필요할 때 가끔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 인가요?

제가 MBC를 다니면서 받은 혜택이나 얻은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부분이지만, 재능기부라는 계창의력이 떨어지거나 활동 능력이 줄어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56년생이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후에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아무튼, 사우회원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면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대담 편집장>



MBC에 남겨 놓은 몇 가지 추억들



정진철(보도)

잃어버렸던 녹음기 찾고 올버린 사연

1972년 <세계 속의 코리아> 제작을 위해 김준철 부국장과 북유럽 일대 취재를 할 때였다. 스위스 제네바 거리에서 시민 인터뷰를 한 뒤 버스 정류장 벤치에 EM2녹음기를 둔 채 깜박 잊고 숙소로 돌아왔다. 돌아온지 약 5시간이 지나 녹음 편집을 하려다가 녹음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20일간 7개국을 돌며 취재한 내용 중 각국 정상 및 석학들과의 인터뷰가 들어 있었다.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망연자실, 새파랗게 질린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다. 어디에 두고 왔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김 부국장은 세상을 잃어버린 듯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간신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호텔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서 최종 인터뷰를 한 것이 생각났다. 절망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버스 정류장 벤치로 달려갔을 때, 세상에! 우리 녹음기가 그대로 놓여 있질 않는가. 5시간이나 지났는데. 꿈인지 생인지, '과연 선진국 사람들이야'를 연발하며 우리는 녹음기를 붙들고 엉엉 울고 말았다.

'카메라 출동'과 나

KBS, MBC, TBC뉴스가 대부분 엇비슷해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김영수 보도국장에게 '카메라 기자'가 찍고 기사를 쓰는 '고발 꼭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처음엔 40초 앵커멘트로 시작한 <카메라 고발>은 1974년 2월 4일에 첫 선을 보였고 이날의 주제는 '금남의 집 르네상스'였다. 명동의 유명한 여성 전용 르네상스 다방에서 여자들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잡은 것이다.

<카메라 고발>은 후에 <카메라 출동>으로 이름을 바꿔 <MBC뉴스 데스크>의 시청률을 끌어 올리는 효자 아이템이 됐다. 초창기에는 사회비리를 파헤치고 꼬집는 내용이었지만 80년대 이후에는 고발에 대한 개선책까지 제시했으며, 방송 후 개선된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카메라 출동>이 인기를 끌자 KBS와 TBC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곧 꼬리를 내렸다. 12년간 지속된 이 프로그램은 1975년 한국방송대상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자동차 안전벨트 처음 실험

1975년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외면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운전자도 위하고 <카메라 출동>의 신뢰와 이

미지를 위해서도 특별한 실험을 하고 싶었다. 자동차를 약 15미터 높여 떨어지게 굴러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려면 자동차도 있어야 하고 장소도 물색해야 했다. 여러 날의 고심 끝에 폐차 한 대와 마네킹을 구했다. 기흥에 있는 골드컨트리클럽 공사장을 실험 장소로 섭외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카메라 기자 3팀을 이끌고 실험장으로 갔다. 위에서 깊은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니 가물가물 보기도 아찔했다.

운전석에 앉은 마네킹에는 안전벨트를 메고, 조수석 마네킹은 매지 않았다. 벨트를 맨 경우와 매지 않은 경우를 실험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실수라도 하면 두 번의 실험은 어려웠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집중했다. 차를 밀어 뜨려 추락하는 모습, 바닥에 떨어지고 난 뒤의 상황까지 완벽하게 카메라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반 세 근 반하는 가운데 '레디 고'를 외쳤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돌아가고 긴장의 순간이 지났다. 촬영은 당초 의도대로 성공했다. 마네킹이지만, 안전벨트를 맨 것과 매지 않은 것의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영상이 '뉴스데스크'에 방영되자 격려의 전화가 쏟아졌다. 교통 당국은 <카메라 출동> 화면을 교육용으로 활용했다. 그로 인해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말이 생겼고 시

민들도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해 '안전벨트의 생활화'가 뿌리를 내렸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대기발령'

1980년 7월 8일 이진희씨가 사장으로 취임했다. 1980년 8월 15일, 육영수여사 6주기 취재를 하라는 지시를 보도국장으로부터 받았다. 문화과학부 박윤희 기자와 이재은 카메라 기자가 낮에 있었던 행사를 취재했으나 저녁행사는 취재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사장이 보도국장에게 저녁행사도 취재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위서를 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취재기자들에게 쓰라고 할 수도 없어서 부장들이 썼다.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대기발령은 한 달 이내에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해고였다. 최원두 문화과학부장과 나는 어리둥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황당한 기분이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서슬 시퍼런 사장실로 쳐들어갔다.

"아니, 취재 지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취재를 합니까?"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사장은 나를 잠시 짚어보더니 "회사 명령을 되돌릴 수는 없어. 알았으니 가 있어!"했다. 보름쯤 후에 대기발령은 해제됐으나 최 부장은 다른 데로 좌천되고 말았다.